

IMTV 제공

금월도(錦月島)

2부

춘주



S#1. 바다 + 조타실 / 해질 무렵

조타실에서 눈을 뜬 수리영, 눈을 돌려 주위를 확인한다. 붉은 원은 없고
깔끔하다. 바다, 배, 방금 전에 인우와 한바탕하고 쓰러졌던 기억이 돌아오면서
머리가 깨질 듯 아프다.

수리영

(벌떡 일어나며) 여기 어디예요? 설마 다시 항구로 돌아간 건
아니죠? (안개 숲만 보일뿐)

인우

(자기 할 밀만 할 뿐)...

수리영

(핸드폰을 꺼내 이리저리 위치를 확인하는데)...

인우

여긴 폰 안 터져.

안개 숲을 빠져나오자 섬이 눈앞에 펼쳐진다
석양빛에 반사돼 황금빛으로 물든 섬.

수리영

(경계심) 무슨 섬이에요? 무인도인가. 여기 위치가...

인우

지도에 쓰여져 있는 곳.

수리영

그럴 리가... 거긴 그냥 바다일 텐데...

인우

바다지만... 섬이야. 금월도라고. 아무나 올 수 없는 섬.

수리영

네?! 사람이 살아요?

인우

(못마땅한 표정으로 힐끗) 내가 여기 살아.

수리영

네?!(돈을 꺼내며) 여하튼 고마워요.(받지 않자 주머니에 다시
넣고) 사진 속의 그 식당도 그럼 여기 있는 거 맞죠?

인우

(빠히 수리영을 보더니) 꼭 갈 건가? 그냥 돌아가도 되는데.

못마땅해 새초롬하게 서 있는 수리영,
인우 멀리 보이는 산 중턱에 외따로 떨어진 허름한 식당을 손으로 가리킨다.

해가 산등성이 끝에 걸려 있는 시각, 어둠이 깔리기 시작한다.
뒤도 안 돌아보고 돌아서서 걸어가는 수리영, 뒷모습을 보는 인우표정이 어둡다.

S#2. 식당 앞 / N

산 중턱 홀로 덩그러니 자리한 식당. 희미한 불빛의 낡은 외관. 벽에 나무기둥에
희미하게 쓰인 ‘금월’이라는 글자가 보인다. 제대로 찾아왔다는 생각에 반가운
그런데 통유리로 들여다보이는 내부엔 도축된 돼지고기가 커다란 도축용 칼에
꽃힌 채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 바닥에 핏자국들. 그 모습에 흠칫 놀라는 수리영,
문 앞에 서서 망설이는데…갑자기 확, 문이 열린다.

S#3. 식당 안 / N

문을 연 사람은 다름 아닌 신이(40대 초반 여. 목에 감출 수 없는 상처 자국)

신이

(낮선 젊은 여자의 등장에 놀라) 어. 어.

신이가 주방 안으로 뛰어 들어간다.
퀘퀘하고 비릿한 고기 냄새에 눈살을 찌푸리는 수리영.
식당 안에는 60대 초반의 늙수그레한 노인(이하 황씨)이 홀로 국밥을 먹고 있다.
잠시 후 백발의 영란(68세, 여. 촌주) 손을 닦으며 나온다.
가볍게 인사하는 수리영

(cut to)

수리영과 영란이 마주앉아있다.
위엄있고 눈빛이 형형한 여인의 범상치 않은 모습에 주눅이 든 수리영.
수리영 백팩에서 지금의 엄마 사진을 꺼내 보여주면서

수리영

이 분을 찾고있습니다. 제 엄마인데요.

영란

(표정을 풀지 않은 채로) 엄마? 엄마를 찾아 여길 왔다고?

수리영

네. 본적 없으세요?

영란

모르오. 가시게 (일어난다)

뭐 이렇게나 박절할 필요가 있나.. 영란의 심한 부정이 오히려 의심스러운 안되겠다 싶은 수리영 백팩을 뒤져 다른 사진을 꺼낸다.

수리영

(어릴적 사진을 다시 내보이며) 이 식당이 여기 맞는 거
같아서요. ‘금월’이라 적혀있는 글씨도 아까 밖에서 확인했고.
여기 이 분이 우리 엄마거든요. 어릴적 사진이지만.
이름은 강민숙. 전혀 모르시나요?

영란의 눈이 살짝 흔들리는 것을 놓치지 않는 수리영.

헉! 입으로 손을 가리는 신이 모습까지.

영란, 눈짓을 하자, 신이 쏘살같이 움직이며

식당 문을 안에서 걸어 잠근다. 쿵! (암전)

S#4. 악몽 / N

어둠 속에 스욱 나타난 민숙. 웃고 있다. 그러더니 얼굴이 기괴하게
일그러지면서 목이 뒤틀리고 붉은 혈흔이 튜다.

순식간에 수리영의 얼굴까지 튜는 피.

악- 소리와 함께 악몽에서 깨어난 수리영,

S#5. 현재. 방안 / N

그때 갑자기 휘익-하는 바람, 지지직 불빛이 흔들거리고. 마침내 꺼진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아직도 촛불이나 랜턴을 쓴다)

그때 문 밖에서 검은 인영이 움직이는 게 보인다.(달빛 반사)

놀라 숨이 멎을 거같이 공포에 질린 수리영.

수리영 엉금엉금 다가가 찢어진 창호지로 밖을 보는데,

불쑥 나타난 붉은 눈, 이리저리 눈동자를 돌린다.

아아악! 수리영 뒤로 자빠지면서 외마디 비명을 지르는데,

랜턴을 켜고 밖을 비추니 그제야 검은 인영이 홀연히 사라지는 게 보인다.

손전등을 들고 방을 나서는 수리영. 아무도 없다.
 청명한 달빛에 이곳의 밤은 낮처럼 밝다.

S#6. 영란 집 마당 / N

마당에 나온 수리영. 마당 평상에 석창포가 널려있다.
 석창포를 만지며... 왠지 엄마가 살았던 섬이라는 생각이 들고.

마당 후미진 곳의 나있는 쪽문.
 삐그덕--- 조심스럽게 쪽문을 열고 나가는데
 어딘가에서 새어 나오는 불빛이 보인다.

S#7. 움막 밖 / N

건조시키고 있는 삶은 석창포는 긴 빨랫줄에 겹겹이 널려있어
 달빛이 밝아도 시야를 많이 가린다.
 손전등을 끄고 빛에 다가가는 수리영,
 새어나오는 빛은 약간 떨어진 어떤 움막에서 나오는 불빛이다.
 말린 석창포 줄은 쪽문에서 그 움막까지 이어져 있다.
 움막에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수리영.

/움막 안쪽
 돼지를 칼로 절단하며 냉동 창고에 넣는 신이와 황씨.
 그 모습을 지켜보며 긴 곰방대를 물고 있는 영란.

/다시 밖
 고기를 썰고 창고에 넣는 작업 소리와 함께 속삭이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린다.
 움막에 기대서 얘기를 듣는 수리영.

신이(E)

그니까 언니가 애를 낳고 최근까지 산거네요. 그쵸?

황씨(E)

꼭 빼닮았네. 어릴 적 민숙이가 온 줄 알았어요

신이(E)

언니가 사라졌다니... 설마 죽은 건 아니겠죠?

영란(E)

...글썸다....(탁탁 곰방대를 털고)

/옴막 안쪽

툭! 뭔가 떨어지는 소리에 놀라는 세 사람.

/다시 밖

살며시 안을 들여다보려다가 넘어진 수리영. 도망친다.

확- 문을 열어제끼고 나와 살피는 영란.

석창포 헤치고 달려가는 사람의 그림자가 보인다.

/쪽문 안

쪽문 안에 들어와 숨는, 헐떡이던 숨을 고르는

/옴막 밖

손전등을 켜는 영란, 수리영임을 짐작하며 표정 험악해진다.

S#8. 금월도 바다 모습 / D

출렁이는 바다. 금월도의 아침이다.

S#9. 영란 집 마당 + 방 / D

밤새 한숨도 못 잔 수리영, 초췌한 얼굴로 밖을 살핀다.

집안에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한 후, 안방(영란의 방)으로 들어간다.

S#10. 방 안 / D

여기저기를 조심스레 뒤지는 수리영,

몇 권 안 되는 책들 속에 낡은 공책 한 권을 발견한다.

거기에 이상한 그림이 그려져 있다.

<그분>과 <만월제> 그림이 잔뜩 그려진...

첫 장 펼쳐보면 알 수 없는 한자들이 세로쓰기로 적혀 있다.

뒤쪽을 넘겨보던 수리영, 이번엔 비교적 알아보기 쉽게 적힌 글자들을 발견한다.

26/06/03이라고 적혀 있고 밑에는 9998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다.

같은 방식으로 26/07/02 밑에는 9999라는 숫자가 보이는데...

한 달 주기로 기입된 숫자들을 물끄러미 보면서 의아한.

‘7월 2일이면... 내 생일인데?’

공책을 다시 꽂아두고 이번엔 아랫목에 있는 좌식 책상 쪽으로 향한다.

엄마와 관련된 흔적을 찾을 수 없어 다급한. 얼핏 영란이 찍힌 사진액자가 보인다.

액자 뒤편의 버클핀 사이로 구겨진 채 빠져나온 종이. 구겨진 종이를 펴보니 어릴 적

엄마와 젊은 영란이 함께 찍은 사진이다.

헉! 놀라 입을 틀어막고, 사진을 주머니에 넣는다,

밖에서 부는 바람 소리에 놀라 얼른 액자를 내려놓고 방을 나서는데,

S#11. 영란의 집 마당 / D

웬 남자가 서 있다. 심장이 멎을 뻔한 수리영. 후~

산들

(고개를 쪽 빼며) 뭐 했어?

산들(30세.남) 수리영에게 바짝 다가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킨다.
수리영 놀라 움찔, 뒤로 주춤하지만 개의치 않는다.

산들

좋은데. 예상대로야.

키 크고 이목구비가 또렷한. 하지만 알 수 없는 살기가 느껴져 소름 끼치는

산들

촌주님 손녀지? ...기다렸는데.

수리영

손녀?! 누..누구세요? 날 왜 기다려요?

영란(E)

(날카로운 목소리) 네가 왜 여깁는 게냐!?

S#12. 영란 집 마당 / D

마당 안으로 들어서는 영란,
전혀 기죽지 않는 산들, 씨익 웃음을 흘리며 가버린다.
쪽문으로 획 나가버리는 산들을 매서운 눈으로 쫓는 영란.
뒤에 서 있는 신이 손에는 아침상이 들려있다.

S#13. 방안 / D

조용히 밥을 먹는 영란, 신이 그리고 수리영.
수리영은 밥을 한 수저 뜨고 이내 숟가락을 놓는다. 영란을 바라보는 눈이 매섭다.
간간이 수저 움직이는 소리뿐. 질식할 거 같은 긴장감.

신이

(약간 더듬) 고, 고기도 먹어.

고기와 선지를 보자 옥~ 구역질한다. 그런 수리영을 미동도 않고 관찰하는 영란.

수리영

저리 좀 (치워주세요). 후~ 저 채식주의자예요.

신이

뭐? 채식...

수리영

고기를 못 먹는다고요. 어릴 적부터 엄마도 저도 고기를 안 먹어서...

영란

(손가락을 내려놓고 수리영을 뵈히 보다가) 이봐 학생. 여기는 외지인이 머물 곳이 아니요. 나 모르게 자네 어머니가 여기 있을 리도 없고. 내가 배편을 알아볼테니 바로 떠나소.

수리영

... 아니요, 싫어요!

영란

(노려보는 수리영 시선과 맞부딪치며)...

수리영

(영란 방에서 발견한 사진 보여주며) 이건 뭐예요?
우리 엄마 알잖아요? 우리 엄마랑 무슨 사이에요?
왜 모른다고 하셨어요?

신이

(놀라, 국그릇을 엮는) 어, 어,

영란

(그저 바라볼 뿐 말을 삼키는)

수리영

제가 직접 찾아볼게요. 우리 엄마의 전화기가 여기서 끊겼거든요. 그럼 여기에 우리 엄마가 온 거잖아요!
당신은 그런 우리엄마를 아는 사람이고.(획 나가버린다)

신이 놀라서 수리영을 따라 나간다. 시선이 흔들리는 영란

S#14. 영란 집 밖 / D

신이를 뿌리치고 달려나온 수리영. 처음으로 섬을 제대로 둘러본다.
어젯밤에는 볼 수 없었던 금월도의 풍경,
사면의 바다에 둘러싸인 작은 섬. 어딜 둘러봐도 망망대해뿐이다.

뒤를 돌아보니 식당과 마치 교회 십자가처럼 식당 지붕 한복판에 둥근 원(굴렁쇠)이
설치돼 있다. 사방 처마에도 둥근 원 모양의 풍경들.
갑자기 머리에 찌를듯한 통증과 함께 떠오른 기억.

[F.B: 1부 몽타주]

범인이 남긴 것 같은 표식-둥근 원,
옥실에서 본 둥근 원,
마지막 방안에서 발견한 엄마 어릴적 사진속의 둥근 원까지...

식은땀이 흐르고 가쁜 숨을 몰아쉰다.

S#15. 섬 어느 일각 / D

핸드폰을 들고 이리저리 위치를 잡아 보지만 먹통이다.
한 쪽은 깎아지른 듯한 절벽아래 바다.. 반대편은 비스듬한 산 중턱.
산 중턱에는 석창포가 지천으로 자라고 있다.
그 한가운데 텅텅 주저 앉으며.

수리영

엄마, 여기 온 거 맞아?... 저 할머니는 누구야.
뭘 숨기는 걸까...분위기가 너무 이상해, 엄마.(한숨) 후~~~
도대체 어딘는 거야.

S#16. 식당 안 / D

커다란 곰솔 앞에서 긴 국자로 열심히 젓고 있는 신이.
국물 사이로 큼직한 고기 건더기가 휘저어지고 있다.
신이, 안채를 힐끗. 영란이 인우에게 은밀하게 뭔가 얘기를 주고받는 모습이
보인다

(E) 손님들

여기 국밥 안줘요? 소주도 몇 병 더 주고.

손님이 부르는 소리에 정신이 번쩍.
일어나서 내장탕을 한가득 퍼 담아 쟁반에 담는다.
소주 두 병 꺼내 낚시꾼 테이블에 내장탕과 함께 놓는 신이.
낚시꾼들은 아침부터 꽤나 많이 마신 듯 거나하게 취했다.
(낚시꾼 무리는 40대 남자 3명, 30대 여자 2명)

낚시꾼 남1

(신이에게) 아줌마 여기 고기 잘 잡혀요? 요즘에는 뭐가 주로 잡히나?

신이

(더듬) 미- 민어.

낚시꾼 남2

뭐요?

여자1

(남자들에게) 민어라잖아. 말을 좀 더듬네. 그냥 술이나 마셔

여자2

그래. 바다에 나가보면 알겠지.

비릿한 냄새를 가득 풍기며 식당 안으로 들어오는 산들.
낚시꾼들을 보고 씨익 웃으며 다가와 앉는다

산들

낚시하러 오셨죠? 그럼 낚시 배가 필요하실 텐데...
내가 싸게 빌려드릴게. 다섯이 타야 하니까
작으면 안 될 거고. 이 마을에 큰 배는 내 거밖에 없소.

낚시꾼 남1

그래요? 마침 잘됐네. (술따라 주며) 일단 목이나 축이슈

여자1

무인도라며? 사람도 살고, 이렇게 한섬한 청년도 다 있네.
흐흐 (술잔 들고) 건배.

산들, 누군가를 찾는 듯, 주방 안을 힐끔거리며 술을 마신다.

S#17. 금월도 해안가 / D

카메라, 망망대해에서 금월도

중턱의 드문드문 허름한 집을 훑고(숨겨져 잘 보이지 않는),
바다와 중턱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곳에 자리 잡은 영란 집을 비춘다.

반나절을 섬을 돌아다녔지만 엄마는 커녕 사람 구경조차 못한 수리영.
해안가 선착장(인우의 선착장과는 다른 장소)으로 내려온다.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인우.

수리영, 바다로 내려오니 마침 배가 한 척 정박해있고.
나이 지긋 해보이는 남자(이하 황씨)가 배안에서 홀로 어구를 정리하고 있다
다가가 쪼그리고 앉아 황씨(50대 후반) 동작을 물끄러미 바라보는데

황씨

(무심한 목소리로) 촌주님 댁 손님이슈?

수리영

네?

황씨

어젯밤 식당에 봤잖소.

수리영

아, 기억나네요. (용기내서) 혹시... 우리 엄마 아세요?
강민숙이라고.

황씨

(답하지 않고) ...

수리영

엄마가 어릴 때 외지로 나갔으니까 모르실 수도 있겠네요,

황씨

(어구 정리가 끝난 듯 툭툭 털고 일어나며)
'강민숙'이란 사람, 우린 모르오. 아가씨도 그 이름,
아는 척하지 않는 게 좋을 거요. (가버리는)

수리영

(당황) 네?! (황씨 등 뒤에 대고)
아저씨? 왜요?! 잠깐만 아저씨!! (뒤도 안돌아보고 간다)

분명히 아는 눈치다. 그런데 모른 척 하라고!
기어코 답을 들으려 다시 쫓아가보지만 어느새 사라진 황씨.

S#18. 산 중턱 마을 / 해질 무렵

황씨를 쫓아가다 어느새 산중턱에 올라온 수리영
드문드문 집들이 보인다. 담장도 있고. 황씨를 놓치고 돌아서는데... 헉!
재밌는 놀잇감이라도 만난 듯 실실 쪼개며 다가오는 남자들.
준수(28세, 남), 진성(27세, 남), 현재(25세, 남)
모른 척 지나치려는 수리영의 길을 막고 다가온다.

준수

와, 못 보던 애네. 어디서 왔어?

현재

내가 뭐랬어. 딱 봐도 아니랬지?

진성

(킁킁 냄새 맡으며) 냄새가 달라. 너무 좋아.

어기적 걸으며 다가와 냄새를 맡으려는 행동에 질겁하며

수리영

뭐하는 짓이에요?

현재

까칠하네. 우리가 뭘 했다고? 후후

여긴 재밌는 거 암 것도 없어. 우리가 배 태워 줄까?

수리영, 현재를 밀치고 도망친다. ‘야, 어딜가’ 뒤쫓는 무리들.
있는 힘을 다해 힘껏 뛰어보지만 막다른 길에 도착한 수리영,
피할 곳이 없다.

수리영

당신들 뭐야!

뿔주린 이리 떼 같은 표정의 무리들, 순간 눈빛이 서서히 붉어진다.
겁에 질려 어쩔 줄 모르는 수리영 모습이 대비되면서.
수리영의 가쁜 숨소리(audio- insert)
그들에 에워싸여 하얗게 질린 채 주저앉는 수리영.

그때 퍽! 소리와 함께 현재가 나자빠진다. 인우다.
준수, 진성, 현재 셋이 무리 지어 인우를 한꺼번에 공격하는.
인우, 무리 중에 가장 힘센 준수의 먹살을 잡아 벽에 밀어붙이며
얼굴을 바짝 들이댄다. 살벌한 인우의 눈동자가 붉은빛을 띠다가
푸른빛으로 변한다.

인우

꺼져! 가!

핏발이 강해지더니 주르르 질푸른 핏물이 흐르고
그 모습에 겁을 먹은 듯 준수 뒤로 주춤하더니

준수

튀! 튀!! 가자!

나머지 일행 “씨발! 재수없어!” 욕을 퍼부으며 슬금슬금 물러간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수리영, 물리서는 패거리들을 본다.
인우 역시 뒤도 안 돌아보고 돌아서 가려는데.

수리영

잠깐. 잠깐만!

등만 보인 채로 서 있는 인우.
눈 주위에는 아직도 질푸른 핏물과 푸른색 눈동자가 남아있다.

수리영

고마워요. 어제 배 태워 준 것도 그렇고. 난 수리영이야.
강수리영. 네 이름은? 구해줬는데 이름 정도는 알아야지.

인우

(손만 꿈틀) 인우.

수리영

저기... 가지 말고. 혹시 잠깐 나랑 얘기 좀 할 수 있어요?
막상 섬에 오니 엄마는 어딘는지 모르겠고 이상한 게 너무
많아서 말야.

인우

(돌아본다. 멀쩡해짐) 떠나. 오늘이라도.

여기는 너 같은 애가 있을 곳이 아냐.

자기 할 말만 하고 가버리는 인우.

수리영

(등뒤에 대고) 엄마를 찾아야한다고!!!

S#19. 영란 집 / N

반달이 중천에 떠 있고, 영란 집 처마의 풍경(원)소리가 스산하다.
검은 고양이 영란 집을 쓰윽 바라보더니 도망치듯 가버린다.

/순간 집근처에 돌개바람이 분다. 휘이익_
식당 문의 육중한 나무 걸쇠가 획- 빠지고 문이 덜컹거린다..
쪽문의 문도 저절로 획- 열리고. /

둥!둥!둥! 어디선가 들려오는 북소리.
소리가 점점 커지며 적막을 가른다.

S#20. 방 안/ N

북소리에 번쩍 눈을 뜨는 수리영
얹은 채로 까무룩 잠들었던 듯.
살며시 일어나 방문을 열고 밖을 내다본다.

S#21. 마당 / N

모든 방에 불이 꺼져있는 걸로 봐서 지금 집안에 아무도 없다.
그럼 저 북소리는...?
수리영을 유인하듯 반쯤 열린 문이 빠그덕 빠그덕. 북소리는 둥!둥!둥!

S#22. 도축장 / N

문이 훅 열리는, 도축된 돼지들이 걸려있다.
멀리서 들리는 북소리에도 개의치 않고 껌질이 벗겨져 피가 흐르는 돼지의
배를 가르고 도축칼로 뼈와 살점을 도려내는 산들.
실질 쪼개 웃다가 눈을 희 번득거리고, 의미심장한 미소.

S#23. 섬 어느 일각 / N

북소리를 쫓아 집을 나온 수리영 검은 밤바다를 내려다보는데,
해안가에 횃불을 든 사람들이 무리지어 뭔가 의식치루고 있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산비탈을 내려가는 수리영.

S#24. 해안가 당산나무 앞 / N <의식>

불타고 있는 둥근 원, 원 안에 반달에 들어차 그 느낌이 기묘하다.
불타는 원 앞에서 두 손을 들고 신을 영접하는 듯 포즈를 취하는 여인의 뒷모습
마을 사람들은 연신 고개를 조아리며 불타는 둥근 원을 향해 뭔가를 빌고,
북을 치는 신이. 황씨를 비롯한 몇 사람들은 횃불을 밝히고 있다.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이 드디어 마을 사람들을 향해 돌아선다.
시커멓게 분칠한 눈과 붉은 입술,
신들린 무당 같은 하도 기괴한 분장에 저 사람은 누구지? 하는데... 영란이다.
기겁하는 수리영.

바다에 등을 보이고 촌주 앞에 포박된 채로 무릎 꿇고 앉아있는 죄인(남자)
죄인은 15살쯤 앳돼 보이는 소년이다. 둥!둥!둥!
황씨, 불에 달군 쇠꼬챙이로 소년의 이마에 붉은 원을 새긴다.
아아악~~~ 기절할 듯 고통스러워하는 소년.
점점 커지는 북소리.

촌주 북을 멈추라는 손짓, 사위가 조용해지면
촌주 횃불을 들고 죄인의 얼굴을 본다.
낙인이 제대로 찍혔는지 보고 주민들에게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촌주

섬을 떠나는 일은 섬을 버리는 일이다.
허가 없이 나간 행위는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다.
(나무 패를 들어보이며) 허가 패가 없으니 너는 우릴 버리고
바람만 믿고 나갔다.

마을 주민들

우-우-우

황씨, 양동이의 바닷물을 한 바가지 떠서 죄인의 발에 붓는다.
물은 흘러내려 바다로 향한다.

촌주

물은 지나가도 말은 남는다.
(쇠꼬챙이로 죄인을 가르키며) 누가 너를 데려갔느냐?

죄인

(입을 꼭 다문다)... ..

촌주

누가 물으로 나가 피를 탐하라 했느냐?

죄인

(고통으로 얼굴 찡그릴뿐)... ..

촌주

들어라. 이 아이는 앞으로 72시간 동안 석창포 물만 마실
것이다. ‘그분’이 내린 규율 어긴 자는 고기를 먹을 수 없다.
‘그 분의 뜻’을 어기고 섬을 떠나는자, 물에 나가 생피를
탐하는 자, 그리하여 금월도를 위태롭게 하는 자는
규율대로 살려두지 않을 것이다.
오늘은 이 당산나무에 묶지만, 다음에는 바다에 묶여 돌아올
수 없을 것이다.

사람들이 황씨의 지휘 하에 소년을 당산나무에 밧줄로 묶는다.
이마에선 여전히 피가 흐르고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소년은 고개를 숙인다.
부모인 듯 보이는 자는 소리 없이 울고,
준수, 현재, 진성은 노골적으로 촌주한테 적의를 드러내며 보이지 않게
침을 뱉는다. 이 모든 것을 숨어서 지켜본 수리영.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사방에 흩어지자
수리영, 정신을 차리고 부리나케 산비탈을 올라 집으로 향한다.

S#25. 영란 집 부근 / 동틀 무렵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집 근처에 다다른 수리영, 바위에 걸터앉는다.
보고서도 믿을 수 없는. 마치 원시종교 의식 같은 믿을 수 없는 그 광경이 떠오르
자 몸서리 치는 수리영. 마을에서 저 할머니가 형벌을 내리는 존재라니...

수리영

그러면 설마... 엄마도...?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동틀 무렵.
한줄기 새벽빛이 저 멀리 바다에서 이제 막 일렁이기 시작한다.

바다를 보며 여전히 생각에 골몰하는 수리영.
그 뒤로 통을 들고 다가오는 누군가...
통이 움직일 때마다 점점 더 짙어진다. 비릿한 냄새에 고개를 돌리는 수리영인데..
바로 코앞에 신기한 듯 자신을 내려다보는 산들 얼굴.
바위섬에서 내려앉아 자세를 바로잡으며

수리영

뭐하는 짓이에요?!

산들

촌주님이 뭐래? 엄마가 죽었다고 하는데... 그냥 모른 척해?

수리영

우리가 엄마가 죽었어? 당신 우리 엄마를 알아?

산들

알지. '강. 민. 숙' 흐흐. 언젠가는 죽을 거였어. 여기서든
물에서든.

수리영

(해괴한 말에) 뭐라고?!

확 산들을 붙잡는 수리영,

산들

(손을 내려다보며 소름 끼치는 웃음) 왜 이럴까?

수리영

말해! 알고 있는 게 뭔지!

산들

(실실 쪼개며 귓속말로) 누군진 알아도 말 못하지.
촌주님 눈 밖에 나면 이렇게 되니까.

눈앞에 통을 가져다 대는 산들. 기겁하며 뒤로 물러나는 수리영,

산들

여기 뭐가 들었는지 알아? 머리. 사람머리.

통 안을 얼핏 보는데 수리영의 눈앞엔... 시뻘건 핏속에 잠긴 무언가가 통 안에 구겨

저 담겨 있다. 핏속에서 언뜻 드러나는 사람의 얼굴...!

수리영

으아아아악!!!

놀란 수리영이 자신도 모르게 통을 밀쳐내 버린다. 그 바람에 흔들려 넘어진 통에서 시뻘건 피가 한가득 흘러나온다.

산들

많이 놀랐나봐. 그냥 장난 좀 친 건데.

핏물과 선지가 어지러이 뒤섞여 바닥에 흩어져 있다. 시신은 없고.
웃으며 재밌다는 듯 수리영을 쳐다보는 산들.

S#26. 악몽. 영란집안 / 새벽

카메라 흔들리며 영란집 마당을 훑고 지나간다.
방안 장롱 안에 몸을 웅크린 채로 숨어 있는 어린 수리영.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가 가까워지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킁킁.
문을 확 여는 사람, 강민숙이다. 그런데 너무나도 슬픈 얼굴.
시계 시침이 빠르게 마구 움직이더니 어느덧 어두운 방 안.

어린 수리영(V.O)

엄마, 이번엔 내가 술래다?

어느새 자란 21살의 수리영이 장롱 안에서 나와 방안으로 달려가는데
처참한 모습 (목과 얼굴 반쪽에 깊게 패인 상처로 피가 흐르는)으로
누워 있는 엄마(민숙)를 발견한다.
흥건하게 흘러내린 피로 인해 창백한 엄마에게 다가가는데 죽은 줄로만 알았던
엄마가 눈을 번쩍 뜨고 입을 움직인다.

민숙

가!... 가!!

놀라 벌떡 눈을 뜨는 수리영.
아아아악-----!

이때 저벅저벅 누군가 걸어오는 소리.

방문 앞에 서는 긴 그림자.

이번에는 잡겠다는 생각에 수리영이 방문을 확 열어젖힌다.

그 자리에 서 있는 영란!

수리영

당신이 엄마를 죽였지...!

2부 END